

페퍼스 공·수의 중심 ... “오늘 첫 승 기대하세요”



라이트·센터 '멀티 플레이어' 하혜진

전 배구선수 하중화의 딸로 주목
5경기 37득점 ... 공격력 갈수록 향상
“광주 팬 기대 커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
멋진 백어택도 보여드릴게요”

“우리만의 플레이를 해보자는 마음입니다. 잘 안되더라도 하나라도 더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예요.”

하혜진(25)에게 AI페퍼스는 '기회'다.

AI페퍼스에는 비록 타 구단에선 빛을 보지 못했지만, 새 무대를 기회 삼아 커리어를 꽃피우려는 선수들이 포진해있다.

하혜진이 대표적이다. 하혜진은 지난 2020-2021시즌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뛰다 올해 AI페퍼스로 적을 옮겼다.

하혜진은 전 배구선수 '코트의 신사' 하중화의 딸로 일찍이 주목받았다. 하지만 실력과 잠재력이 있음에도 주전으로 뛸 기회조차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선수기도 하다.

하혜진은 2014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도로공사에 입단했다. 하지만 7년 동안 하혜진은 줄곧 백업 신세를 면치 못했다. 외국인 용병과 전사인, 박정아 등 실력 있는 선수들에 가려 주전으로 뛸 수 없었다. 2017년 월드그랜드챔피언스컵, 2019년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여러 차례 국가대표로 발탁됐지만 역시 백업 역할이었다.

결국 하혜진은 2020-2021시즌이 종료된 뒤 FA가 되었다. 2020-2021시즌에서는 22경기에 출전해 17득점을 올리는 데 그쳤다. 공격 성공률은 33.33%였다.

AI페퍼스로 이적한 하혜진은 마침내 '주전'으로서 코트에 올라섰다.

하혜진은 라이트와 센터를 오가는 '멀티 플레이어'다. 주 포지션은 라이트지만, AI페퍼스에는 외국인선수 엘리자벳에게 '주포' 타이틀을 넘겨 주고 주로 센터로 출전하고 있다.

하혜진은 “포지션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오히려 나만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포지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 시즌 동안 체력을 많이 끌어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혜진은 최근 5경기에 출전해 37득점을 올려 이미 지난 시즌의 2배를 넘겼다. 공격 성공률도 42.11%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득점 능력은 날로 늘고 있다. 지난 달 29일 도로공사전에서는



하혜진이 지난 29일 도로공사전에서 스파이크하고 있다. 하혜진은 9일 수원 화성종합철내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을 상대하는 AI페퍼스의 핵심 전력이다. (KOVO 제공)

엘리자벳이 원업준으로 몰려나자 주 포지션인 라이트를 맡아 6득점(공격 성공률 46.15%)을 뽑아냈다. 지난 5일에는 '강호' 현 대건철을 상대로 11점을 올렸다. 공격 성공률은 53.85%에 달했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이 센터-레프트 활용을 높일 계획임을 고려하면 하혜진의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특기인 후위 공격(백어택)도 기대를 모은다. 후위 공격은 적절하게 구사하면 전위 공격만 할 때보다 다양한 공격 옵션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V리그 여자배구에서 후위 공격은 타점이 높은 외국인 용병들에게만 집중되곤 했다.

하혜진은 “그동안 센터로 출전해 백어택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아쉽다”며 “아직 기회는 많다. 실력을 더 갈고 닦아서 꼭 멋진 백어택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수비 역할도 특출히 하고 있다. 세트당 평균 블로킹 횟수도 0.58로 역대 시즌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리시브 효율 55.56%, 세트당 평균 디그 횟수 1.26회 등 모든 기록이 일취월장했다. 하혜진은 센터로서 블로킹 능력을 강화해 더 다양한 플레이, 더 많은 기회를 잡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혜진은 “상대 분석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 팀의 보완할 점을 되짚으며 경기하고 있다”며 “AI페퍼스에 대한 광주 시민과 배구 팬 여러분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AI페퍼스는 9일 오후 7시 수원 화성종합철내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과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석환, '팀 홈런 꼴찌' KIA 타선의 새 희망

퓨처스리그 25경기 7홈런

“내년 시즌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파”

‘야구의 재미’를 안 KIA 타이거즈의 김석환(22)이 벌써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올 시즌 KIA의 실패 원인 중 하나는 장타력이었다. ‘한방 가뭄’ 속 압도적인 팀홈런 꼴찌(66개)를 기록했다. 한화보다도 14개 적었고, 팀홈런 1위 SSG(185개)에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홈런타자’가 귀해진 KIA는 시즌 막판 희망을 봤다. 내야수 김석환이 희망을 쏘아 올린 주인공이다.

김석환은 2017년 광주 동성고를 졸업한 고졸 5년 차 선수다. 1999년생으로 동기들보다 한 살 어리지만 지난 봄 일찍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기도 하다.

1군에서 2타석 경험이 전부였던 김석환은 전역 후 퓨처스리그에서 ‘무력시위’를 했다.

처음 퓨처스리그 타석에 선 8월 3일, 상무를 상대로 홈런포를 날리는 등 25경기에서 7홈런 19타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10월 24일 마침내 풀업을 받았다.

1군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등 잊지 못할 1주일을 보냈다. 5경기에 나와 프로 첫 안타·타점 그리고 홈런까지 장식했다.

첫 경기에서는 ‘4타석 4삼진’이라는 씁쓸한 기록을 남겼지만 코치·선배들의 응원에 씩씩하게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었다.

김석환은 “처음에는 투수 공에 밀렸다. 내 타이밍에 친다고 하는데 실수가 자주 파울이 되고 카운트가 불리해졌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며 “선배들, 코치님들이 삼진 먹고 들어와도 더 자신 있게 하라고 하셨다. 투수가 잘 던져서 못 친 거고, 더 잘하면 된다고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주눅 들지않고 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상대의 공격적인 피칭에 역시 공격적으로 맞선 김석환은 두 경기에서 안타 없이 5탈삼진만 기록했지만 세 번째 롯데전에서 프로 데뷔 안타에 이어 타점까지 만들었다. 롯데 외국인 투수 프랑코의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공략해 만든 결과였다.

김석환은 “프랑코 공이 빨랐다. 변화구도 30-40km대로 웬만한 직구 스피드 만큼 나와서 앞에 두고 치자는 게 좋은 결과로 나왔다. 타점 상황에서는 득점권에서 동점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집중하고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김석환은 프로 4번째 안타는 홈런으로 장식하는 등 자신감 있



김석환

고, 시원한 스윙으로 매 경기 성장세를 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남다른 파워에 ‘어린 예비역’으로 김석환의 가치는 상승했다. 187cm라는 큰 키도 ‘장신 1루수’로 여필할 수 있는 무기다.

김석환은 “군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좋아한다(웃음). TV로 야구를 많이 본다. 동기, 후배, 선배들 야구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야구가 하고 싶었다. 야구할 때가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군대 빨리 다녀온 게 좋은 것 같다. 더 튼튼해졌다. 요즘은 군대에서 핸드폰도 할 수 있지만 계속 나가서 운동을 했다. 배려도 많이 해주셨다. 나중에 값으러면서 배팅 치라고 망도 사주셨다”고 웃었다.

준비를 잘 해 온 김석환은 적극적인 자세로 빠르게 그라운드 에 적응했다.

김석환은 “처음 라이브할 때 겁이 없었다. 라이브 배팅 5번 정도 치고 시합 나갔는데 타이밍이 잡히지 않았다. 일단 과감하게 들러서 감을 잡자고 생각했는데 첫 경기에서 홈런이 나왔다. 2-3경기 지나고 나니까 감이 잡혔다”고 말했다.

1군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은 김석환에게 중요한 자산이 됐다.

김석환은 “어떻게 쳐야 하는지,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지 등 많이 배웠다. 힘으로만 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일단은 콘택트가 돼야 내 힘도 쓸 수 있으니까 정교함이 중요하다. 경기 뛰면서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생각하는 야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무작정 패기로 뭉치기보다는 이제는 나도 전략적으로 싸워야 한다”며 “18년에는 정말 긴장됐는데 이번에는 야구가 재미있었다. 야구를 계속 하고 싶었다. 겨울에 준비 잘해서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코비치, 메드베데프 꺾고 파리 마스터스 우승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마스터스 1000시리즈 롤렉스 파리 마스터스 단식에서 우승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트로피를 들고 있다. 이날 결승에서 그는 ‘디펜딩 챔피언’ 다닐 메드베데프(2위·러시아)를 상대로 2시간 15분 만에 2-1(4-6 6-3 6-3)로 역전승했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마스터스 1000시리즈 대회에서 통산 37번째 우승을 기록, 이 부문 최다 기록을 세웠다. 우승 상금은 33만6030 유로(약 4억5000만 원)다. /연합뉴스

두산-삼성, 오늘부터 KBO 플레이오프 대결

‘가을 DNA’를 깨운 두산 베어스가 ‘포스트 시즌’ 세 번째 팀을 상대한다.

2021 KBO 플레이오프(P·3전 2승제)가 9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막을 올린다. 2016년 라이온즈파크 개장 이후 처음 열리는 ‘가을잔치’는 두산과의 대결로 펼쳐진다.

두산은 키움 히어로즈와의 와일드 결정전에 이어 LG 트윈스와의 준플레이오프까지 넘으면서 대구행을 확정했다.

두산은 지난 7일 준PO 3차전에서 슈퍼 캐치와 3안타 4타점의 맹활약을 한 ‘MVP’ 정수빈을 앞세워 10-3 대승을 거두고, 2승에 섰다.

이와 함께 두산은 ‘1차전 승자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라

는 공식을 이어가면서 가을에 강한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감잡고 상승세를 탄 두산,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이 유리하다.

두산은 벌써 5경기를 소화하면서 마운드 부담이 많다.

선발 싸움에서도 삼성이 우위를 점한다. 두산의 미란다, 로켓이 부상으로 PO명단에도 빠지게 됐지만 삼성은 류케넌, 백정현, 원태현 등 올 시즌 10승 고지에 오른 세 명의 투수를 앞세워 한국시리즈 티켓을 노린다.

두산의 ‘기세’와 삼성의 ‘전력’이 맞붙는 대결. 두 팀은 각각 장원준과 류케넌을 1차전 선발로 내세워 기싸움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